

울산시, 수소 기반 굴착기 실증... 친환경 건설현장 만든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 선정
HD건설기계 등 6개 기관 협약
수소전기 굴착기 2대 현장 투입

울산시가 건설현장 핵심 장비인 굴착기의 무공해 전환 실증에 나선다.

울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에 ‘고체수소저장합금 적용 수소 기반 중대형 굴착기 실증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HD건설기계 등 6개 참여기관들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증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디젤 굴착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또 수소전기 굴착기 상용화에 필요한 작업 데이터와 안전·인증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총 4년 간 진행된다. 사업비는 166억원(국비 85억원, 시비 3억원, 민자 78억원)이 투입된다.



HD건설기계 수소전기 굴착기

핵심은 디젤 건설장비를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전기동력 기반 장비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업 주관은 동구에 사업장을 둔 HD건설기계가 맡는다. 울산시, 현대자동차·기아, 한국건설기계연구원, 한양대학교, 한양테크노켄, 울산테크노파크 등 산학연 기관도 참여한다.

이번 실증에는 고체수소저장합금을

적용해 개발한 HD건설기계의 14t급 수소전기 굴착기 2대가 투입된다. 해당 장비를 활용한 현장 실증은 국내 최하다. 고체수소저장합금은 고체 금속 내부에 기체 상태의 수소 분자를 고밀도 저장하는 기술이다. 고압 기체 저장 방식보다 낮은 압력으로 운용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충전소 구축 비용도

기존 700bar급 고압 방식 대비 100bar 이하로 낮아져 약 5분의 1 수준으로 절감될 수 있다.

사업은 운행 데이터를 축적해 성능과 경제성, 안전성을 검증하는 현장형 모형으로 추진된다.

시는 수소저장합금을 적용한 수소전기 굴착기와 충전시스템의 표준·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해 세계적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 또 이번 실증이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 건설·산업기계 개발 및 상용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주 오염원인 디젤 굴착기를 대체해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최초 고체수소저장합금 적용 수소전기 굴착기 실증을 통해 건설현장의 무공해 장비 전환을 이끌겠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친환경 건설장비의 보급 확대와 수소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부산금융박물관로드’ 확대·개편

부산시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입주해 있는 금융기관의 박물관·전시시설을 연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인 ‘부산금융박물관로드’를 확대·개편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박물관(부산관)을 신규 편입하고, 운영 코스를 나이별 맞춤형 체계로 확대할 것이 특징이다.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금융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이별 특성을 반영한 키즈로드(미취학 아동 대상)와 마스터로드(초·중·고등학생~성인 대상)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금융 기초 개념부터 화폐·증권·자본시장·과학기술 분야까지 체계적이고 폭넓은 금융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사천시

내달 목욕·이미용 바우처 충전

경남 사천시가 다음 달 1일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하반기 목욕·이미용 바우처 3만 5000원을 일괄 충전한다고 밝혔다.

목욕·이미용 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으로 목욕탕이나 이미용 시설을 자주 찾기 어려운 고령층의 위생·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연간 지원금을 기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고, 분기별로 나눠 지급하던 방식을 상·하반기 두 차례 지급으로 바꿨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우수’

경남 김해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역 건강통계와 주민 건강요구도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공공보건으로 기반 확충,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 지역 건강문제에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선순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경북도교육청

라오스에 한국어 교육용 책 기증

경북도교육청은 라오스 현지 학교와 도서관 등에 한국어 교육용 책 3500여권을 기증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증 대상은 라오스의 라오-한국대학 유초등학교, 비엔티안중학교, 라오스국립대학, 라오스 국립도서관, 로고스 외국어학원 등 5 곳이다.

경북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해외 책 기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금까지 라오스와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지의 학교 23교에 1만8000여권의 책을 기증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경북·대구, 정보보호산업 기반 확장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 200억 투입
사업화 지원·융합보안 실증 등 추진

경북도가 대구시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수도권 중심의 정보보호 산업 기반을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전자산업과 연계한 정보보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북도는 대구시를 비롯해 포항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으며, 세 번째 도전 끝에 선정됐다.

대경권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각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투입해 ‘AI 로봇 특화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포항·구미의 로봇 제조 및



실증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봇과 정보보호 기술을 연계할 수 있는 점과 로봇산업 특화 보안산업 육성 계획을 제시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AI 로봇 보안 테스트베드와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을 구축하고, 정보보호 기업 육성과 사업화 지원, 융합보안 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역 로봇산업 기반과 정보보호 산업을 연계한 융합보안 생태계를 조성해 AI 로봇 보안 분야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는 “AI·로봇 산업 확산에 따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로봇 제조·실증 인프라와 정보보호 산업을 융합해 경북을 AI 로봇 융합보안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주시, ‘온라인플랫폼 판로지원사업’ 추진

제품개발 등 올해 말까지 4억 투입

경주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6년 온라인플랫폼 판로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판매 기반 구축과 유통채널 입점 지원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총 4억원을 투입해 지역 업체 85개사 인력을 지원한다. 사업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위탁 수행한다.

지원 분야는 우수제품 개발, 쇼핑물 기획전 운영, AI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 협업 등이다. 우수제품 개발 사업은 시장조사와 컨설팅, 제품·디자인 개발, 콘텐츠 제작,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을 지원하며 지난 18일 참여기업 5개사를 선정했다.

쇼핑물 기획전은 온라인 유통플랫폼 내 경주시 전용관 운영과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개사를 모집 중이다. AI 라이브커머스는 AI 쇼호스트를 활용한 판매 방송을 지원하며 오는 30일까지 20개 업체를 모집한다.

인플루언서 협업 사업은 블로그 체험단과 숏폼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제품 홍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반기 중 10개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경주시는 하반기 라이브커머스와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라인 판매 지원을 본격화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참여기업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남, 소통창구 가동... 민선 9기 출범 만전

도민·공직자 제안 접수... 도정 반영

경남도가 다음 달 출범하는 민선 9기를 앞두고 도민과 내부 공직자들의 정책·조직 운영 의견을 받는 별도 창구를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사진) 취임 4년차에 맞춰 마련된 두 채널은 도민용 ‘민선 9기 경남도정에 바란다’와 공직자용 ‘도지사 직통 핫라인’이다. 19일 정오 기준 두 창구에 접수된 의견은 일주일 만에 155건에 이른다.

도민 창구에는 같은 시점까지 138건이 접수됐다. 분야나 형식 제한 없이 받는 자유 제안 방식이다. 주요 제안으로는 세 자녀 가구 지원 확대, 지개남산도로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확충,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 국도 5호선 거제 육상부 구간 조기 착공 등 생활 밀착형 민원과 지역 현안



이 함께 올라왔다. 공직자 대상 ‘도지사 직통 핫라인’에는 17건이 접수됐다.

내부 제안 중에서는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는 이른바 ‘오피스 빌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비롯해 결원 충원 등 인사 운영 개선, 사무전결권 하향, 체계적인 업무 인수인계 제도 마련, 출자·출연 기관 운영 개선 등이 거론됐다.

경상남도에는 도민 제안을 정책화 가능성과 수용 여부를 따져 민선 9기 도정 운영에 반영하고, 공직자 제안은 즉시 조치·제도 개선·조직 문화 조성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민 창구는 26일까지, 직원 창구는 30일까지 운영된다. 직원 제안은 별도로 7월 말 ‘민선 9기 도정혁신 실행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완도군, 바다숲 조성·해조류 양식 본격화

어업인 ‘바다연금 모델’ 확대 방침

전남 완도군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주관하는 바다숲 탄소 거래 및 블루크레디트 시범사업 대상지로 고금 상정, 소안 미라·동진, 생일 금곡, 금일 동백, 신지 월부 등 6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조류가 바다숲에서 흡수한 탄소량을 정량화해 탄소 크레디트 거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

해조류 탄소 흡수량을 과학적으로 측정·보고·검증(MRV)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수익 전환 가능성을 실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아촌계 희망에 따라 금일 동백은 곰피, 신지 월부는 다시마와 미역 등 해조류 양식형, 고금 상정은 잘피 숲 성체 이식, 소안 미라는 조하대 감태 이식, 생일

금곡과 소안 동진은 조간대 갯EGI, 유용자역 살포 등 바다숲 조성형으로 사업을 펼친다.

완도군은 이달 말까지 사전 현장 점검과 초기 모니터링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바다숲 조성과 해조류 양식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모니터링 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현장 검증과 최종 심사를 거쳐 내년 7월에 블루카본 인증서가 발급될 전망이다.

완도군은 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바다 연금’ 모델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해운, 에너지, 식품 등 ESG 경영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크레디트 선 구매의 형식(LOI)을 확보할 예정이다.

/완도(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